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청소년의 우울 및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¹⁾

한 상 철
경산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본 연구는 지각된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청소년의 우울 및 가출충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과 상호작용을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지원 및 대처전략의 개인차를 분석함은 물론 우울 및 가출충동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차별적 처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구 지역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의 남녀 학생 전체 635명(분석대상 623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 우울 및 가출충동을 각각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MANOVA, 2-Way ANOVA, Stepwise Regression 등의 통계분석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우울 및 가출충동은 사회적 지원의 지각과 대처전략 모두의 영향을 받지만, 우울은 사회적 지원에 의해 그리고 가출충동은 대처전략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지원 지각수준과 대처전략들간의 유의한 상호작용이 밝혀졌다. 이는 사회적 지원과 대처전략의 완충효과를 지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울 및 가출충동에 대한 차별적 처치 가능성을 시사해 주었다. 즉, 우울 감소를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의 개선과 함께 소극적 대처전략을 적극적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처치가 필요하며, 가출충동 감소를 위해서는 대처전략의 훈련과 함께 소극적 대처전략 집단의 경우 더욱 풍부한 사회적 지원의 제공과 사회적 지원 지각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 정서적인 면에서 주요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발달적 이행기이다. 변

화는 곧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주요 우울장애와

1) 이 연구는 1999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된 것임.

섭식장애, 신체질병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영향을 준다(Adams, Overholser, & Spirito, 1994; Barnet, Quinlan, Leadbetter, & Auerbach, 1996; Unger, Kipke, Simon, Johnson, & Montgomery, 1998).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장애는 외현적 문제행동보다 훨씬 더 심각하며 또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Holsen, Kraft, & Vitterso, 2000). Elder(1995)가 제안한 생애과정이론에 의하면, 예컨대 가출 청소년의 경우, 가출 이전의 정신적 장애 즉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과 충동성이 가출행동을 촉발시키며, 가출 후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옛것과 유사한 것을 선택하려는 경향성 때문에 그들의 거리문화와 또래관계는 가출 이전의 우울 및 충동성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특정한 위험행동 이후 그들의 심각한 정신적 장애는 각종 충동성 비행, 약물,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문제행동의 선택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Elder, 1995; Unger et al., 1998).

청소년들의 다양한 정신적 장애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파급 효과가 큰 것이 우울이다. Achenbach (1991)에 따르면, 우울한 청소년은 사회적인 관계를 회피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주의력이 산만하고, 자기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충동성의 비행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 Blatt 등(1993)은 자기 비판성과 의존성을 우울의 가장 중심적인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자기 비판성의 경우 비행과 공격성 등의 외현적 문제를 더 많이 예측하고, 의존성은 정제감 혼미, 가출 및 자살충동 등의 내현적 문제를 더 많이 예측한다고 하였다. 한편 자기 비판성향의 우울은 자기 패배주의, 냉소주의, 강박·충동적인 반사회적 성격과 관계가 높은 반면, 자포자기 형태를 보이는 의존성향의 우울은 히스테리, 안면근, 경계선 성격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Fehon, Grilo, & Martino, 2000). 결국, 우울은 그 자체가 내현적 장애요인이면서 청소년들의 외현적 및 내현적 문제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우울은 다른 어떤 시기보다 청소년기에 발병율이 높으며 청소년 초기보다 중기와 후기에,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Peterson et al., 1990). 그러나 Holsen, Kraft 및 Vitterso(2000)는 우울이 청소년기 전체 동안 비교적 높은 안정성을 유지하지만, 여학생의 경우 안정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남학생은 높은 안정성을 갖지만, 여학생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연구, 수직적으로 증가한다는 연구, 그리고 중기에 정점을 보이다가 그 이후 하향 추세를 보인다는 연구 등이 혼미 상태에 있다(Nolen-Hoeksema & Girgus, 1994). 그러므로 청소년기 동안 우울의 안정성을 남녀에 따라 재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충동성은 가출충동, 자살충동, 폭력충동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부분 그 위험성이 높으며 외현적 문제행동의 방아쇠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출충동은 우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실제적 가출 뿐만 아니라 충동적 비행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출 청소년들이 정신적 우울, 나쁜 신체 건강, 약물사용 등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Unger et al., 1998; Yoder et al., 1998)은 가출 충동성에 내포된 심리적 고통과 갈등을 가출 이후에 더욱 강화시키고 확대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한상철, 1999; Elder, 1995). 따라서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 후 문제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정신적 장애 즉, 우울과 가출 충동성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울과 가출충동은 청소년의 기질이나 신경 생리적 요소 및 다양한 스트레스 인자에 의해서보다 개인의 신념이나 지각, 대처능력 등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김정희, 1987; 이은주, 1998; Dumont & Provost, 1999; Selman, Schultz & Yeats, 1996). 예컨대 생물학적으로 억제된 기질과 기형적인 뇌 구조를 가졌거나 사회 문화적으로 심각한 가난, 부모 및 또래와의 갈등과 분쟁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 장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일반 청소년들의 경우 이와 같은 사례는 많지 않으며, 오히려 다양한 스트레스 인자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신념, 관리능력이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elman et al., 1996;

Folkman et al., 1987).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이지만 영향력의 크기는 기대만큼 높지 않다(Dumont & Provost, 1999; Folkman & Lazarus, 1980; 김정희, 1987; 이은주, 1998). 이것은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이 다른 요인 즉, 자기 존중감, 내적 통제능력, 대처전략과 같은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지원과 같은 환경적 자원에 의해 중재 또는 조절되기 때문이다. 즉, 대처전략이 부족할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원에 대한 지각이 낮을수록 가출을 비롯한 위험행동의 선택비율이 높고 우울, 신체건강의 악화, 알코올 및 약물사용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회적 지원과 대처전략의 중재 효과를 시사하는 것이다(Cohen & Wills, 1985; Simon et al., 1996).

청소년과 초기 성인들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낮은 지각은 불안, 우울, 정신 신체적 장애, 수면장애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Daniels & Moos, 1990; Dumont & Provost, 1999; Weigel et al., 1998). Cohen과 Wills(1985), Dumont 등(1999)은 사회적 지원의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적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두 가지 모형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사회적 지원이 개인에게 스트레스 사건의 실제적 경험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효과 모형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지원이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거나 조절한다고 가정하는 완충효과 모형이다. 이에 대해 Lohman과 Jarvis(2000), 이미숙(1996) 등은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 인자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키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스트레스 인자와 관계없이 개인의 적응 및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Cohen과 Wills(1985), Barrera(1986)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 수준이 낮았으나, 부정적 생활 스트레스가 적을 때는 사회적 지원의 지각 정도와 관계없이 우울 수준이 낮았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원이 완충작용을 하느냐 혹은 주효과만을 갖는가 하는 것은 치료적 개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사회적 지원이 완충효과를 갖는다면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갖는 영향력이 더욱 크다는 뜻이므로 스트레스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의 예방

과 치료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의 완충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생활사건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의 지각 정도와 부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하였을 뿐,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주효과 및 완충효과를 함께 분석하지는 않고 있다. Dumont와 Provost(1999)는 최근 사회적 지원의 스트레스 완충효과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대처전략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양변인의 개인차에 대한 연구는 일반 청소년의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위험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을 조력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Folkman 등(1987)은 개인의 정신건강은 단지 스트레스 인자의 존재 유무에 의해서보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Compas(1987), Comerchi와 MacDonald(1990) 등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그들의 생활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스트레스 인자에 노출되어 있다. 즉, 주요 생활사건, 생활의 변화, 성숙 요인, 만성적 요인, 일상적인 분쟁 및 갈등 등이 모두 스트레스 인자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연구에 있어서 스트레스의 존재 유무나 스트레스 경험 정도는 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스트레스 인자에 대한 그들의 대처능력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이은주, 1998; Lohman & Jarvis, 2000; Unger et al., 1998).

대처전략은 스트레스 인자 그 자체에 반응하기 위한 것(문제중심의 대처)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인자에 의해 야기된 정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것(정서중심 대처)일 수도 있다. 대처전략의 선택은 개인이 자신에게 유용한 자원과 스트레스 인자의 크기 양자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달려 있다(Unger et al., 1998). 문제중심의 적극적 대처는 우울과 나쁜 신체적 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반면, 정서중심의 소극적 대처는 우울, 충동성, 낮은 자기존중감 등의 내적 장애와 각종 위험행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Folkman & Lazarus, 1980; Lewinsohn et al., 1997; Lohman & Jarvis, 2000).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적극적 대처전략은 정보나 충고를 수용하고, 문제해결의 노력을 보이는 등의 기능적인 측면과 관계가 있고, 소극적 대처전략은 철회하거나, 운명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회피하는 등의 역기능적인 측면과 높은 관계가 있다(Seiffge-Krenke, 1995).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대처전략에 따라 우울 및 가출충동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대처전략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자들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스트레스 대처를 크게 문제해결중심의 적극적 전략과 정서중심의 소극적 전략으로만 구분하였을 뿐(예, 김정희, 1987; 성선진, 1997; Unger et al., 1998), 적극적인 대처전략과 소극적인 전략 모두를 높게 사용하는 청소년이나 어떠한 대처전략도 사용하지 않는 무 전략적인 청소년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적극적 전략이나 소극적 전략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전략을 지배적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양가감정 또는 정체성 혼동으로 인하여 양 전략을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어떠한 전략에도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적극적, 소극적, 양면적, 무전략의 4가지로 구분하여 이들 각 개인차 집단의 우울 및 가출충동에 대한 차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완충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지각과 더불어 대처전략을 포함시킬 경우, 양 변인의 주효과와 더불어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사회적 지원에 대한 지각수준이 우울 및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극적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사람과 소극적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 이는 사회적 지원의 완충효과를 지지해 줄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의 차별적 처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다양한 스트레스가 적용 및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가정하에 사회적 지원에 대한 지각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청소년의 우울과 가출충동 각각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적 영향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우울과 가출충동에 대한 남녀간·학교단계

간 차이를 확인하고, 사회적 지원에 대한 지각과 대처전략 각각이 우울 및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며, 이와 함께 양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밝힘으로써 개인차에 따른 차별적 처치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사회적 지원과 대처전략

사회적 지원이란 한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지원으로서, 단일차원이라기보다는 다차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Cohen과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원을 평가적 지원, 자기 존중감 지원, 소속감 지원, 유형적(물질적) 지원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사회적 지원으로 개념화하였다. 평가적 지원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같이 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충고를 해 줄 사람이 있는가의 여부를 의미하고, 자존감 지원은 자신감을 심어 주거나 자기로 하여금 긍정적 평가를 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소속감 지원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인가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물질적 지원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구나 재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성선진, 1997).

Herzberg, Hammen, Burge, Daily, Davila 및 Lindberg (1999)는 사회적 지원을 실행된 지원과 지각된 지원으로 구분하고, 초기의 애착 경험이 두 가지 유형의 지원 모두와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각된 지원이란 조력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개인의 감각을 의미하며, 실행된 지원이란 개인이 실제로 받는 지원적인 교류를 뜻한다. 따라서 지각된 지원은 인지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실행된 지원은 행동적인 측면을 대표한다. 한편, Cohen과 Wills(1985)는 사회적 지원을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측면과 지원의 지각에 관한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기능적인 지각 측면이 개인의 적응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인지적 지각 차원의 사회적 지원은 연령 증가에 따라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 관계없이 안정성을 갖는 개인의 심리

적 특성으로 이해됨으로써(Herzberg et al., 1999), 실행된 지원이나 구조적 지원보다 개인차를 이해하고 부적응을 설명하는데 더 가치로운 변인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지원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개인이 사회적 지원체계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 수준이 높고, 긍정적 사고를 하며 반대로 지각 수준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이 많고, 정신 병리적 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한다(Dumont & Provost, 1999; Unger et al., 1998; Weigel et al., 1998). 이는 곧 사회적 지원이 분쟁이나 생활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과정에서 스트레스 자극들을 덜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대처전략의 선택과정에서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하며,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Cohen & Wills, 1985; Thoits, 1995).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도 부모의 지원 혹은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 충동성, 비행, 약물남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양돈규, 1997; Unger et al., 1998).

스트레스와 적응 및 부적응간의 관계를 검토한 많은 연구들은 스트레스와 부적응간의 직접적인 상관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r=.30$ 이하), 오히려 다른 매개변인이 이 두 변수간의 관계에 작용한다는 사실을 제안하고 있다(김정희, 1987). 따라서 스트레스와 부적응과의 관계를 조절 또는 중재하는 변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최근 사회적 지원과 대처전략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Dumont & Provost, 1999; Lohman & Jarvis, 2000; Weigel et al., 1998). 사회적 지원의 효과를 검증한 많은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모형 즉, 주효과(main effect) 모형과 완충효과(buffering effect)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효과 모형은 사회적 지원이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개인의 적응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며, 그리고 완충효과 모형은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 상황에 잠재되어 있는 유해한 자극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원의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예컨대, Barrera(1986)는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간의 관계는 낮은 사회적 지원의 맥락에서 더욱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이 완충효과를 갖는지 주효과를 갖는지 아니면 두 가지 효과 모두를 갖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풍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에서 사회적 지원과 대처전략의 우울 및 가출충동에 대한 상호작용을 확인해 봄으로써 완충효과와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며, 상호작용이 밝혀질 경우 사회적 지원과 대처전략의 개인차에 따라 차별적인 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처전략(coping strategies)은 개인이 스트레스의 효과를 묵인하고, 회피하며, 최소화하는 인지적·행동적 노력을 말한다(Dumont & Provost, 1999; Lazarus & Folkman, 1984). 대처전략은 대개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지만, 지난 10년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급속히 증가되었다. 대처전략은 접근-위축 모형이나 문제-정서 중심 모형에 따라 설명된다. 문제해결에 중점을 둔 대처전략은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는데 목표를 두는 반면, 정서중심 전략은 그 상황을 변경시키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유해한 상황을 단지 회피함으로써 심리적 불편함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전략들이다(Lazarus & Folkman, 1984). 전자를 적극적, 후자를 소극적 대처전략이라고도 하는데, 소극적 대처양식은 정신병리적 문제를 지닌 아동과 청소년, 우울증 및 낮은 자기존중감을 지닌 청소년들과 높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Dumont & Provost, 1999). 이 때 개인이 어떤 대처전략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유용한 대처 능력의 유무와 스트레스 인자의 요구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기초한다(Unger et al., 1998).

우울과 가출충동

최근 청소년의 우울기분 및 우울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정신건강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외적 문제행동과의 관련성 때문이다(Dumont & Provost, 1999; Holsen et al., 2000; Unger et al., 1998). 더구나, 우울증의 최초 징후가 성인기 이전에 나타난다는 사실이 분명해 졌고(Kandel &

Davies, 1986), 그런 초기의 징후가 성인기 이후의 증상으로 지속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Petersen et al., 1993), 우울증은 정신병 치료의 가장 훌륭한 단일 예측 요인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으며 (Compas et al., 1993), 우울한 기분 및 증상은 자살생각과 자살행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많은 보고들 (Kandel et al., 1991; Harrington, 1993; Reinherz et al., 1993)이 제시됨으로써, 청소년기의 우울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의 우울은 그들의 심리 사회적 발달과 대인간 기능화를 방해하며, 반사회적 또는 비사회적 문제행동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Harrington, 1993; Holsen et al., 2000; Kovacs, 1996).

Holsen 등(2000)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우울은 안정성을 갖는다고 전제하고, 시간의 경과나 상황적 변화에 따른 일관성을 절대적 안정성이라고 하고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을 상대적 안정성이라고 명명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우울의 차이는 절대적 일관성을 나타내는데, 청소년 초기(11세-13세)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적으로 다소 높거나 동일한 수준을 보이지만, 13-14세경이 되면 여학생의 우울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Nolen-Hoeksema & Girgus, 1991; Reinherz et al., 1993; Kandel & Davies, 1986). 그리고 남학생의 우울은 청소년기 전체 동안 평균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유지되지만, 여학생에 대한 연구결과는 매우 혼란스러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우울이 청소년기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결과와 수직적으로 증가된다는 연구, 그리고 청소년 중기에 정점에 이르다가 그 이후 하향추세를 보인다는 결과가 각각 보고되고 있다 (Holsen et al., 2000; Petersen et al., 1991). 요약하자면, 우울의 성차는 초기와 후기에 가장 적게 나타나며, 중기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Nolen-Hoeksema & Girgus, 1991). 한편, 상대적 안정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우울의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해 Charman (1994), Devine 등 (1994)은 청소년 초기와 중기, 후기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도 우울 및 가출충동의 남녀 차이와 학교수준간 차이를 확인해 봄으로써 우울의 안정성을 재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우울은 특성상 높은 스트레스와 소외감, 무가치감 등을 내포하고 있음으로써 정서적, 평가적, 자기존중적 사회적 지원에 의해 그리고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의해 경감될 수 있다(Unger et al., 1998). Achenbach(1991)에 따르면 우울한 청소년은 사회적인 관계를 회피하고, 충동적인 문제행동을 많이 일으키며, 주의력에 장애가 있으며, 자기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비행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또한 무력감과 고립감, 분노와 공격의 감정, 죄책감, 자기징벌의 욕구, 망상 등으로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하거나, 폭력이나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한상철, 1999).

청소년들의 우울과 관련된 문제행동은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Kovacs, 1996). 남학생들에게는 불열성 장애와 그리고 여학생들에게는 섭식장애와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불안장애, 행동장애, 비행장애와의 동시발생율을 보인다(Gerhardt et al., 1999; Melchoir et al., 1993). 그리고 청소년의 음주 및 약물복용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고(Yoder et al., 1998), 단일 요인으로 자살을 높게 예측하는 변수로 보고되기도 한다(한상철, 1999; Unger et al.,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대처전략의 영향과 상호작용을 확인해 봄으로써, 청소년 우울에 대한 처치변인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처치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문제행동으로 가장 지속적으로 보고됨과 동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가출이다. 가출 청소년의 38%가 신체적 건강 악화를 보고하고 있으며, 알콜사용 79%, 마리화나 77%, LSD 67%, 코카인 54%, 약물주사 30% 등의 조사보고(Kipke et al., 1998)는 일반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이들의 부적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정신적 장애로서 가장 심각한 것이 우울증이다. LA 지역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

구에서 표본집단의 64%가 DSM-III의 임상적 우울 준거를 충족시켜 주고 있음은 일반 청소년 7%와 비교했을 때 매우 충격적인 비율이다(Unger et al., 1998).

청소년 가출은 대부분 가출 이전의 사전 징후 즉, 가출충동으로부터 비롯된다. 국내의 조사연구에서도 일반적인 중·고등학생의 70% 이상이 가출충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가출충동을 보고한 학생들도 약 30%에 이르고 있다(한상철, 2000). 가출충동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가출 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Colder & Stice, 1998; Elder, 1995). 이것은 가출 청소년의 높은 우울이 가출 이전부터 형성된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며, 가정과 학교, 또래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낮은 수준의 지각과 부적절한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가출 이전부터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조성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출충동이 부모, 교사, 또래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낮은 지각과 소극적인 대처전략 등에 기인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지, 그리고 양 변인의 상호작용은 작용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방법 및 절차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대구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남녀 학생 가운데 표집된 635명이다. 이들은 남녀 학교에서 1개교씩을 임의 표집한 다음 각 학교의 2학년 가운데 중학교 3개 학급, 인문고와 실업고 각각 2개교씩을 무선 표집한 후 이들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는 중학교 남녀 전체 275명, 인문고 195명과 실업고 165명이다. 중학교 남녀 학생을 1학급씩 더 표집한 것은 청소년 초기와 중기 학생들간(중·고 집단간)의 발달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4개의 검사도구 모두에 충실하

게 반응하지 않은 12명을 제외한 623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자료분석 대상자는 중학생 267명(42.85%), 인문고 193명(31.30%), 실업고 163명(26.16%)이며 그리고 남학생 308명(49.43%), 여학생 315명(50.56%)이다. 이들의 연령은 중학생 만 14세, 인문고와 실업고 학생 만 17세에 해당된다.

조사도구

1) 사회적 지원 척도

사회적 지원 지각 검사는 Cohen과 Hoberman(1983)이 개발한 “대인관계 지원 평가척도”(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ISEL)를 문성원(1990)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문항의 일부를 수정 및 축소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최초의 검사는 4개의 하위척도(물질적, 평가적, 소속감, 자존감)로 구성된 총 45개의 문항이었으나, 문항 내용 가운데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의미 전달이 불명확한 것을 제외하거나 수정하여 전체 30개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도구의 하위척도별 문항 수는 물질적 지원 6개, 평가적 지원 7개, 소속감 지원 9개, 그리고 자존감 지원 8개이며, 4점 평정척이다(1점-4점).

검사도구의 하위척도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4, .87, .78, .72로서 양호한 편이다.

2) 대처전략 척도

대처전략 검사는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the Way of Stress Coping Checklist)를 김정희(1987)가 수정·보완한 것을 축소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4개의 하위척도(문제중심, 정서완화, 소망적, 사회적 지원)를 갖는 4점 평정척의 6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중심과 사회적 지원을 적극적 대처로 그리고 정서완화와 소망을 소극적 대처로 대별하여 이를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4개의 검사도구에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과다한 문항수로 인한 반응의 비신뢰성을 고려하여 문항수를 36개로 축소하였다. 재구성된 검사도구의 하위척도별 문항수는

문제중심 13개, 사회적 지원 4개, 정서완화 12개, 소망 7개로써, 적극적 대처 17개 문항과 소극적 대처 19개로 구분된다.

이 도구의 하위척도(적극적, 소극적)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5와 .82이다.

3) 우울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 척도는 Beck(1967)의 'Beck Depression Inventory'(BDI)이며, 양돈규(1997), 한상철(1999) 등이 사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것이다. BDI는 우울환자들에게서 관찰되는 가능한 행동적 증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증상의 강도를 4점 평정척(0점-3점)에 따라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체 문항수는 21개이며, 응답자는 주어진 4개의 진술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2로 매우 양호한 편이다.

4) 가출충동 척도

청소년의 가출충동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3점 평정척으로 된 15개 문항의 "가출충동검사"를 자체 개발하였다. 이것은 Whitbeck 등(1997), Yoder 등(1998)의 연구에서 나타난 가출충동의 특징을 분석하고, 대구 YMCA(1999)의 가출충동검사 가운데 일부를 참조하여 개발한 것이다. 한상철(2000)은 이 척도를 이용하여 소년원생과 일반 학생간 가출충동의 의미있는 차이를 분석한 바 있으며, 일반 학생집단 가운데는 실업고 학생들의 가출충동이 중학교와 인문고보다 더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7이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AS를 통해 MANOVA, 2-Way ANOVA, Stepwise Regression 등의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집단간 차이와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지원의 지각 수준을 33%를 기준으로 상, 중, 하로 구분하였으며,

대처전략을 4가지(적극적, 소극적, 양면적, 무전략)로 나누었다. 대처전략의 구분은 피험자의 적극적 및 소극적 대처의 평균점을 준거로 하여 적극적 대처가 평균(21.69) 이상이고 소극적 대처가 평균(24.82) 이하이면 '적극적', 그 반대이면 '소극적', 양 전략 모두 평균 이상이면 '양면적', 양 전략 모두 평균 이하이면 '무전략' 사용으로 교차 구분하였다. 이는 피험자의 특정 전략 선호도와 전략에 대한 개인차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결 과

성별·학교급별 차이

먼저, 우울 특점의 남녀간 및 학교단계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2-Way ANOVA를 적용해 본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우울 특점은 남녀 학생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으며, 학교 수준간에 0.1% 수준의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 즉, 우울 특점은 실업고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과 인문고 학생들보다 각각 의미있게 더 높으며, 중학생과 인문고간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우울 특점의 성별·학교급별 차이는 없으며, 실업고 학생이 중학교나 인문고 학생보다 우울이 더 높은 것은 발달적 차이보다 상황에 따른 차이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업고의 교육환경과 생활환경 및 진로에 대한 불안 등이 인문고나 중학생보다 더 높기 때문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 특점에 있어서 다소 높지만 의미있는 차이는 없다. 그러나 중학생은 여학생(16.05)이 남학생(14.45)보다 다소 높지만, 실업고는 오히려 남학생(17.48)이 여학생(16.8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있는 결과로 볼 수는 없으나,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다.

가출충동 특점의 남녀간 및 학교단계간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1. 우울 특점의 남녀간·학교단계간 차이

집단	평균	표준편차	F	개별비교(Tukey)
남	14.90	8.40	1.26	
여	15.86	7.12		
중 (A)	15.29	7.66	7.09 **	C-A*
인고 (B)	14.04	7.33		C-B *
실고 (C)	17.14	8.22		
성별x학교급별			1.13	

*p < .05 ** p < .001

표 2. 가출충동 특점의 남녀간·학교단계간 차이

집단	평균	표준편차	F	개별비교(Tukey)
남	23.66	6.46	0.27	
여	24.44	5.94		
중 (A)	24.26	6.49	15.98**	C-A*
인고 (B)	22.26	5.42		C-B*
실고 (C)	25.85	6.08		A-B*
성별x학교급별			10.64 **	

*p < .05 ** p < .001

가출충동의 경우 남녀 학생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으나, 학교단계간에는 0.1% 수준의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즉, 실업고가 중학교와 인문고보다, 그리고 중학교가 인문고보다 더 높은 가출충동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성별과 학교단계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다($F(2, 622)=10.64; p<.001$). 그림 1 (부록)에 의하면, 중학교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가출충동을 나타내지만, 실업고의 경우 남학생의 가출충동이 훨씬 더 높다. 이것은 청소년 초기에 여학생들의 사춘기적 변화가 남학생보다 빠르게 나타남으로써 그들의 발달적 변화에 따른 갈등과 스트레스가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 사춘기적 변화를 경험한 청소년 중기에 들면서 여학생과 인문고 학생들은 비교적 안정된 심리상태를

보이지만 실업고 남학생들은 환경적 영향을 크게 받음으로써 높은 스트레스와 충동성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회적 지원 및 대처전략의 우울과 가출충동에 대한 영향

먼저, 독립변인인 사회적 지원의 지각수준을 상, 중, 하로 구분하고, 대처전략을 적극적, 소극적, 양면적, 무전략으로 구분한 후 이들 각 변인이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우울과 가출충동 양 변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MANOVA를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적 지원 지각수준과 대처전략 각 변인별 Wilks' Lambda 값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우울 및 가출충동 전체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Wilks' Lambda)

	Value	F	Num DF	Den DF	P
사회적 지원	0.8130	33.2481	4	1220	.0001
대처전략	0.7080	38.3107	6	1220	.0001
지원x대처	0.9344	3.5050	12	1220	.0001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울과 가출충동 모두는 사회적 지원의 지각수준간에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전략들간에 각각 0.0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의미있는 상호작용도 있다. 보다 구체적인 집단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Univariate Analysis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사회적 지원의 지각은 우울과 가출충동 모두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적 지원 지각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 득점과 가출충동 득점이 높다. 개별비교의 결과, 사회적 지원 지각 수준이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 및 낮은 집단 상호간에 각각 5% 수준의 유

의한 차이가 있다. F값의 크기로 추정컨데, 사회적 지원의 지각은 가출충동보다 우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의 4가지 전략들간에도 의미있는 주효과가 있다. 즉, 소극적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피험자들의 우울 및 가출충동 득점이 적극적 대처전략이나 양면적, 무 전략을 사용하는 피험자보다 더 높다. 또한 양면적 전략과 무전략 사용자들은 적극적 전략 사용자보다는 우울과 가출충동이 높지만, 소극적 전략 사용자보다는 낮다. 양면 전략 사용자의 경우 적극적 전략과 소극적 전략 모두를 평균 이상 많

표 4. 집단간 우울 및 가출충동 득점의 차이

변인	집단	우울		가출충동	
		M	SD	M	SD
사회적 지원 (A)	상(a)	10.09	5.35	21.73	6.30
	중(b)	15.37	5.87	23.89	5.93
	하(c)	20.81	8.13	26.62	6.30
		F(2, 622)=69.96; p<.0001		F(2, 622)=4.47; p<.0118	
tukey 개별비교		a-b; a-c; b-c		a-b; a-c; b-c	
대처 전략 (B)	적극(a)	12.31	5.61	19.03	3.78
	소극(b)	18.68	8.85	27.46	5.76
	양면(c)	14.63	6.67	24.47	6.18
	무(d)	14.04	6.67	24.93	4.75
		F(3, 622)=16.59; p<.0001		F(3, 622)=72.72; p<.0001	
tukey 개별비교		a-b; a-c; b-c; b-d		a-b; a-c; a-d; b-c; b-d	
A x B 상호작용		F(6, 622)=4.91; p<.0001		F(6, 622)=3.57; p<.0018	

이 사용하는 사람들로 정체감 혼미 상태이거나 전략들을 실험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추정되며, 무전략의 경우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음으로써 이에 무반응하는 사람이거나 전략 자체를 포기한 사람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중요한 관심사인 사회적 지원의 지각수준과 대처전략들간의 상호작용이 우울과 가출충동 모두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먼저, 우울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와 예측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부록)에 의하면, 우울은 사회적 지원과 대처전략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사회적 지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그리고 사회적 지원은 대처전략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우울은 대처전략들에 의한 차이보다 사회적 지원의 지각수준상, 중, 하간의 차이가 훨씬 더 크며, 특히 소극적 전략 집단에서 사회적 지원 지각수준간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사회적 지원의 지각수준이 상인 집단은 전반적으로 낮은 우울 수준을 보이며, 적극적 전략과 무전략 집단에서 특히 낮은 우울을 나타내지만, 사회적 지원 지각 수준 중과 하 집단은 적극적 대처에서도 높은 우울을 나타낸다. 그리고 사회적 지원 지각수준이 하인 집단은 소극적 대처전략 상황에서 매우 높은 우울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지원이 대처전략에 따라 차별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의 지각 수준이 낮은 사람(196명) 가운데

소극적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이 101명(51.53%)이고, 그밖에 적극적 28명(14.28%), 양면적 22명(11.22%), 무전략 45명(22.95%)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은 사회적 지원의 지각 수준이 낮을수록 소극적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할 때, 사회적 지원에 대한 지각수준이 낮은 사람은 대체로 소극적 대처 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이들은 우울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단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대처전략의 상대적인 영향을 확인해 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는 사회적 지원의 4가지 하위요인 및 전체의 지각 점수와 적극적, 소극적 대처전략 점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이러한 회귀모형은 청소년의 우울을 예측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 622) = 78.10; p < .001$). 이들 예측요인들의 우울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는 사회적 지원 전체, 자존감 지원, 소극적 대처, 소속감 지원, 평가적 지원의 순이며, 적극적 대처와 물질적 지원은 우울 예측요인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지각이 대처전략보다 우울을 더 많이 예측하며, 대처전략 가운데는 소극적 전략만이 청소년들의 우울을 의미있게 예측해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사회적 지원에 대한 지각이 낮을수록 그리고 소극적 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우울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출충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지각수준과 대처전략간의 상호작용 및 예측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표 5. 우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지지원	R ²	ΔR ²	β	F
지원 전체	.345	.345	-.199	18.15 ***
자존감 지원	.361	.016	-.427	20.88 ***
소극적 대처	.371	.010	.064	10.95 **
소속감 지원	.381	.009	-.109	9.00 **
평가적 지원	.387	.006	-.271	6.64 *
절편			32.571	770.72 ***

* p<.01 ** p<.001 *** p<.0001

먼저, 그림 3(부록)에 의하면, 가출충동은 사회적 지원의 지각과 대처전략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대처전략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가출충동은 사회적 지원의 지각수준 상, 중, 하간에 의해서보다 4가지 형태의 대처전략들간에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지원 지각수준간의 차이는 소극적 전략 사용자 집단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며, 무전략 집단에서도 다소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의 가출충동에 대한 영향은 대처전략들간에 차이가 있으며, 소극적 전략 집단에서 가장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출충동의 경우 사회적 지원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대처전략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보여 주며 특히 소극적 대처전략 사용자의 경우 사회적 지원의 차별적 영향이 매우 현저함을 보여 준다.

단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가출충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대처전략의 상대적인 영향을 확인해 본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사회적 지원의 4가지 하위요인 및 전체의 지각 점수와 적극적, 소극적 대처전략 점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한 회귀모형은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예측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 622) = 33.36; p < .001$). 이들 예측요인들의 가출충동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는 사회적 지원 전체, 적극적 대처, 소극적 대처, 자존감 지원의 순이었다.

가출충동은 우울과 달리 적극적 대처가 소극적 전략보다 더 많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적 지원의 각 하위요인들보다 전체 득점이 가출충동을 더 많이 예언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

의 지각이 낮을수록, 적극적 대처전략을 적게 사용할수록, 그리고 소극적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가출충동이 높으며, 사회적 지원 가운데는 자기존중감에 대한 지원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가출충동이 높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청소년의 우울 및 가출충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과 상호작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지원 및 대처전략의 개인차를 분석해 볼 때 동시에 우울 및 가출충동에 대한 차별적 처치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우울이나 가출충동이 청소년기 동안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발달적 경향성과 남녀간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연구목적은 청소년들이 다른 어떤 연령 시기보다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것의 적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사회적 지원이나 대처전략에 의해 증재된다는 가정에서 비롯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남녀 학생 전체 635명이었으나, 실제 분석대상은 623명이었다. 사회적 지원 지각 검사는 Cohen과 Hoberman(1983)이 개발한 “대인관계 지원 평가척도”를 수정 및 축소한 것인데, 4개의 하위척도(물질적, 평가적, 소속감, 자존감)를 갖는 4점 평정척의 30개 문항이 이용되었다. 사회적 지원의 지각 수준 상, 중, 하는 전체 점수

표 6. 가출충동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지지원	R ²	ΔR ²	β	F
지원 전체	.135	.135	-.101	15.90 ***
적극적 대처	.152	.017	-.134	16.55 ***
소극적 대처	.172	.019	.071	14.93 ***
자존감 지원	.177	.005	-.159	3.86 *
절편			32.981	948.51 ***

* p < .05 *** p < .0001

를 기준으로 33% 분할한 것이며, 중다회귀분석에 투입된 사회적 지원 지각점수는 각 하위척도별 점수와 점제 점수가 사용되었다. 대처전략 검사는 Folkman과 Lazarus(1985)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를 수정 및 축소한 것으로, 4점 평정척의 36개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기 독립적으로 측정되는 적극적 및 소극적 대처전략의 평균점을 교차하여 적극적, 소극적, 양면적, 무전략 집단을 구분하였다. 한편, 중다회귀분석 모형에서는 적극적 대처전략에서의 점수와 소극적 전략에서의 점수를 각각 투입하여 종속변인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우울 검사를 위해서는 Beck(1967)의 ‘BDI’를 신뢰도 검증을 거쳐 사용하였으며, 가출충동 검사는 Whitbeck 등(1997)과 Yoder 등(1998)의 연구에 근거한 한상철(2000)의 “가출충동검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먼저, 우울에 대한 남녀간 및 학교단계간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학교단계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실업고가 중학교나 인문고 보다 의미있게 높은 수준의 우울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학교 단계간 차이는 청소년 초기와 중기간의 차이가 아니라, 학교 상황에 따른 차이로 해석된다. 이것은 중학교 평균(15.29)과 고등학교 전체(15.45)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으며, 실업고 학생의 우울 점수(17.14)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Holsen 등(2000)과 Charman(1994)이 청소년기 초기와 후기간에 비교적 높은 안정성을 갖는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Charman(1994)는 6개월 단위로 3번의 측정을 시도한 결과 임상적 우울과 우울 기분이 높은 안정성을 나타내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Fehon 등(2000)은 청소년의 우울이 발달적 경향성이나 남녀간 차이보다 상황에 따라 달리 측정되어 진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어떤 한 시점에서 높은 우울을 보이는 청소년이 다른 시점에서 낮은 우울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의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본 연구에서 실업고 학생들이 동일 연령의 인문고 학생들보다 높은 우울을 나타내는 것은 우울이 상황적 변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 남녀 학생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으나, 중학교와 인문고의 경우 여학생이 다소 높고, 실업고는 남학생의 우울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13-14세에 해당되는 청소년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우울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Charman, 1994; Nolen-Hoeksema & Girgus, 1994)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준다. 구체적으로 Nolen-Hoeksema 등(1994)은 청소년 초기(11-13세)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간 더 높지만 중기(13-14세)가 되면 여학생의 우울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들 연구자들이 밝힌 13-14세가 본 연구에서의 중학교 2학년(만 14세)의 연령과 동일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중학교 여학생(16.05)이 남학생(14.45)보다 높은 우울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고 남학생들의 우울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은 Fehon 등(2000)의 주장에 기초하여 상황적 요인의 영향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남학생은 중학생이 14.45, 고등학생이 15.22의 평균 우울을 나타내고, 여학생은 각각 16.05와 15.70의 우울을 보임으로써 남녀 학생 모두 청소년 초기와 중기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Nolen-Hoeksema와 Girgus(1994), Petersen 등(1991), Reinherz(1993) 등이 남학생의 경우 청소년 동안 우울의 높은 안정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한다. 한편 Radloff(1991), Petersen 등(1991)은 여학생의 경우 어떤 일관된 결과를 제시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다고 하였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여학생 역시 비교적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출충동에 대해서는 학교단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그리고 남녀와 학교단계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다. 즉, 실업고가 중학교와 인문고보다, 그리고 중학교가 인문고보다 각각 더 높은 가출충동성을 보이며, 그리고 중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가출충동을 보이지만 실업고의 경우 남학생의 가출충동이 훨씬 더 높다. 한상철(2000)은 실업고 학생의 경우 중학교나 인문고보다 높은 가출충동을 보이며, 소년원생과는 의미있는 차

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Blatt 등(1993)은 의존적이거나 자기 비판적인 개인들의 우울 성향이 높으며, 이들은 또한 충동적인 공격성과 반사회적 행동, 자기 패배주의에 빠져드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실업고 남학생들의 높은 가출충동은 우울과 함께 그들의 자기 패배주의와 냉소주의, 자포자기 등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들이 내적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외적 문제행동의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상호작용 효과에서 중학교 여학생의 가출충동이 남학생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인문고 학생들보다 더 높은 것은 이들의 사춘기적 변화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여학생의 사춘기적 변화가 남학생보다 평균적으로 약 2년 정도 빠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학교 시기 여학생의 높은 가출충동과 우울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실제 가출을 시도하는 것은 남학생이 더 많지만(Colder & Stice, 1998; 한상철, 2000), 여학생의 가출충동이 더 높은 것은 이들의 정신적 장애와 심리적 갈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Colder & Stice(1998), Herzberg 등(1999)은 사춘기와 함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가족 성원들과 자신을 분리시키려는 강한 욕구가 나타나며, 가족에 대한 의존성 및 애착이 친구와의 관계로 전이된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가족 내의 사소한 분쟁에서조차 심한 분노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충동성의 욕구가 생겨나게 된다. 따라서 가출충동은 실업고 남학생과 중학교 여학생들에게 높게 나타나며, 우울과 유사한 반응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사회적 지원과 대처전략의 우울 및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이다. 먼저, 지각된 사회적 지원과 대처전략 각각은 우울과 가출충동 전체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며,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다. 즉, 사회적 지원의 지각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과 가출충동 점수가 의미있게 높으며, 소극적 대처전략의 사용이 적극적 전략이나 그 밖의 전략 사용자보다 우울과 가출충동이 더 높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원 및 대처전략의 효과를 연구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Dumont & Provost, 1999; Cohen & Wills, 1985;

Folkman & Lazarus, 1980; Lohman & Jarvis, 2000; Thoits, 1995; Unger et al., 1998)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울과 가출충동의 각 변인별로 사회적 지원과 대처전략의 상대적 영향과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먼저 우울은 사회적 지원과 대처전략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사회적 지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그리고 사회적 지원은 대처전략들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사회적 지각 수준이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 그리고 낮은 집단간에 우울의 큰 차이가 있으며, 대처전략들 가운데는 소극적 전략 사용자가 적극적이거나 무전략 및 양면적 전략 사용자보다 매우 높은 우울특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특히 적극적 대처전략 사용 집단에서는 사회적 지원 지각 수준에 따라 우울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소극적 전략 사용자 집단에서는 사회적 지원의 지각 수준이 낮은 사람과 지각 수준이 높은 사람간에 우울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Cohen과 Wills(1985), Daniels와 Moos(1990), Dumont와 Provost(1999) 등이 제안한 사회적 지원 및 대처전략의 완충효과 모형을 지지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완충효과 모형에서는 사회적 지원과 대처전략이 적용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상쇄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예컨대,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간의 관계는 낮은 사회적 지원과 소극적 대처전략 상황에서 더욱 높다는 것을 제안한다(Cohen & Wills, 1985; Daniels & Moos, 1990). 본 연구의 결과 사회적 지원의 효과는 소극적 대처전략 상황에서 매우 높으며, 대처전략의 효과 역시 낮은 사회적 지원 상황에서 매우 높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우울 감소를 위해 사회적 지원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화시켜야 함은 물론 특히 소극적 대처전략과 무전략 사용자들에게 더욱 풍부한 사회적 지원의 제공과 사회적 지원 지각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대처전략의 개인차에 따라 사회적 지원의 차별적 처치가 요구된다.

가출충동 역시 사회적 지원과 대처전략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우울에서보다는 대처전략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으며, 그리고 대처전략과

사회적 지원간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이 있다. 즉, 적극적 대처전략과 양면적 전략 사용자는 사회적 지각 수준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지만, 소극적 전략 사용자와 무전략 사용자 집단은 사회적 지각 수준에 따라 가출충동에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소극적 전략 사용자들은 사회적 지각 수준 상, 중, 하간에 가출충동의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또한 사회적 지원 및 대처전략의 완충효과 모형을 지지하는 것이다. 즉,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대처전략과 사회적 지원이 증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소극적 대처 전략을 사용할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원에 대한 지각 수준이 낮을수록 가출충동이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적극적 대처전략이 소극적 대처전략보다 청소년의 충동적 문제행동, 알코올을 장애, 반사회적 행동의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많은 연구결과들(Dumont & Provost, 1999; Lazarus & Folkman, 1984; Lohman & Jarvis, 2000; Phelps & Jarvis, 1994)을 지지해 준다. 따라서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완화시키고 실제 가출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적극적 대처능력을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소극적 대처전략을 가진 청소년의 경우 풍부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적 지원에 대한 지각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사회적 지원을 구조적인 측면(양적)과 기능적인 측면(질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Cohen & Wills, 1985; Herzberg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인 면만을 포함시켰다. 구조적인 측면은 사회적 관계망의 성원들이 실제로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의 양으로 이해되며, 기능적인 측면은 인지적 지각 차원으로 개인이 사회적 지원을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Herzberg et al., 1999). 선행연구들은 구조적 측면보다 기능적인 측면이 개인차를 이해하고 부적응을 설명하는데 더 가치로우며 청소년의 내적 및 외적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데도 더 많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Dumont & Provost, 2000; Unger et al., 1998; Weigel et al., 1998). 그러나 양돈규(1997)와 이은주(1998) 등 국내의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원의 구조적

인 측면이 더욱 현실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의 기능적인 면과 더불어 구조적인 측면을 함께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적 지원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의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를 각각 측정하고, 각 전략의 평균점을 기준으로 적극적, 소극적, 양면적, 무전략의 개인차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선행 연구들에서 분명한 개인차 구분 없이 적극적 대처전략의 점수와 소극적 전략의 점수를 투입변인으로 하여 종속변인의 값을 예측하거나(예, Dumont & Provost, 1999; Lohman & Jarvis, 2000), 적극적 및 소극적 각각의 전략을 수준별로 나누어 처리한 것(Lazarus & Folkman, 1984; 김정희, 1987)과는 차이가 있다. 적극적 전략과 소극적 전략의 이분법적 접근을 사용하였을 때, 청소년은 분명히 어느 한가지 전략만을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양 전략을 모두 평균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양 전략 모두에 무관심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처전략을 적극적 과 소극적, 양면적, 무전략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대처전략의 개인차에 따라 우울 및 가출충동의 분명한 차이는 있었지만, 양면적 전략과 무전략 사용집단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하지 못한 점이 연구의 한계로 남아 있다. 이들은 분명 적극적 전략이나 소극적 전략 집단과 차이가 있으나, 그들 집단의 정확한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자의 연구능력을 넘어선 것이었다. 앞으로 이들 집단의 특징과 행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문성원 (1990). 인지적 평가와 사회적 지지가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대학원.
- 성선진 (1997).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돈규 (1997).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미숙 (1996). 사회적 지원의 심리적 효과: 주효과와 완충효과를 위한 이론적 모델과 방법론. *한국사회학*, 30집, 449-472.
- 이은주 (1998).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9, 2, 115-137,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상철 (1998). 청소년기의 위험행동: 교우관계 및 가족역할 변화와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5, 3, 45-62, 한국청소년학회.
- 한상철 (1999). 가출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행동. 논문집 제17집, 경산대학교.
- 한상철 (2000). 가출청소년 및 학생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 지원과 우울과의 관계. 연구보고 99-P 03. 한국청소년개발원.
- Achenback, T. M., Howell, C. T., Quay, H. C., & Conners, C. K. (1991). National survey of problems and competencies among four-to-sixteen-year-old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rial No. 225(Vol. 56, No. 3).
- Adams, D. M., Overholser, J. C., & Spirito, A. (1994). Stressful life events associated with adolescent suicide attempt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39, 43-48.
- Barrera, M. (1986). Distinction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s,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and Psychology*, 14, 413-445.
- Barnet, B., Joffe, A., Duggan, A. K., Wilson, M. D., & Repke, J. K. (1996). Depressive symptoms, stress, and social support in pregnant and postpartum adolescents.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150, 64-69.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oeber.
- Blatt, S., Hart, B., Quinlan, D. M., Leadbetter, B., & Auerbach, J. (1993). Interpersonal and self-critical dysphoria and behavioral problems 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2, 3, 253-269.
- Charman, T. (1994). The stability of depressed mood in young adolescents: A school-based surve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 30, 109-116.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hen, S., & Wills, T.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2, 310-357.
- Colder, C. R., & Stice, E. (1998). A longitudinal study of the interactive effects of impulsivity and anger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 3, 255-274.
- Compas, B. (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 393-403.
- Compas, B. E., Ey, S., & Grant, K. E. (1993). Taxonomy, assessment, and diagnosis of depression during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14, 2, 323-344.
- Comerci, G. D., & MacDonald, D. I. (1990). Prevention of substance abus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dolescent Medicine: State of the Art Reviews*, 1, 127-143.
- Daniels, D., & Moos, R. H. (1990). Assessing life stressor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olescents: Applications to depressed youth.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5, 268-289.
- Dumont, M., Provost, M. A. (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 3, 343-363.
- Elder, G. H. (1995). The life course paradigm. In Moen, P., Elder, G. H., & Luscher, K. (eds.), *The*

- Eleventh Mental Measurements Yearbook*,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Lincoln.
- Fehon, D. C., Grilo, C. M., & Martino, S. (2000). A comparison of dependent and self-critically depressed hospitalized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 1, 93-106.
- Folkman, S. & Lazarus, R. S. (1985). *Ways of Coping Questionnaire*.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Palo Alto, CA.
- Folkman, S., Lazarus, R., Pimley, S., & Novacek, J. (1987). Age differences in stress and coping processes. *Psychological Aging*, 2, 171-184.
- Folkman, S. & Lazarus, R.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 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Society and Behavior*, 2, 219-239.
- Gerhardt, C. A., Compas, B. E., Connor, J. K., & Achenbach, T. M. (1999). Association of a mixed anxiety-depression syndrome and symptoms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 3, 305-324.
- Harrington, R. (1993). *Depressed disorde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Wiley & Sons, Chichester, England.
- Herzberg, D. S., Hammen, C., Burge, D., Daley, S. E., Davila, J., & Lindberg, N. (1999). Attachment cognitions predict perceived and enacted social support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4, 4, 387-404.
- Holsen, I., Kraft, P., & Vitterso, J. (2000). Stability in depressed mood in adolescence: Results from a 6-year longitudinal pane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 1, 61-78.
- Kandel, D. B., & Davies, M. (1986). Adult sequelae of adolescent depressant symptom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3, 255-262.
- Kipke, M. D., Montgomery, S. B., Simon, T. R., & Iverson, E. F. (1998). Substance abuse disorders among runaway and homeless youth. *Substance Use and Misuse*.
- Kovacs, M. (1996). Presentation and course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during childhood and later years of the lifespan. *Journal of American Academic for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 705-715.
- Melchoir, L. A., Huba, G. A., Brown, V. B., & Reback, C. J. (1993). A short depression index for wome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3, 1117-1125.
- Lazarus, R., & Folkman, S. (ed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New York.
- Lewinsohn, P. M., Gotlieb, I. H., & Seeley, J. R. (1997). Depression-related psychosocial variables: Are they specific to depress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3, 365-375.
- Lohman, B. L., & Jarvis, P. A. (2000). Adolescent stressors, coping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health studied in the family contex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 1, 15-43.
- Nolen-Hoeksema, S., & Girgus, J. S. (1994). The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during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15, 3, 424-443.
- Petersen, A. C., Sarigiani, P. A., & Kennedy, R. E. (1991). Coping with adolescence. In M. E. Colte & S. Gore (eds.), *Adolescent stress: Cause and consequences*. New York: Aldine de Gruyter.
- Reinherz, H. Z., Giaconia, R. M., Pakiz, B., Silverman, A. M., Frost, A. K., & Lefkowitz, E. S. (1993). Psychosocial risks for major depression in late adolescence: A longitudinal community study. *Journal of American Academic for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 6, 1155-1164.
- Radloff, L. S. (1991). The use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in adolescents and adul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149-166.
- Seiffge-Krenke, I. (1995). *Stress, Coping, and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Mahwah, NJ.

- Selman, R. L., Schultz, L. H., & Yeates, K. O. (1996). Interpersonal understanding and ac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s. In D. Cicchetti & S. L. Toth (eds.),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3 (pp. 289-329), Hillsdale, NJ: Erlbaum.
- Simon, T. R., Kipke, M. D., Ungel, J. B., & Montgomery, S. (1996). *Homeless youth in Hollywood: The lives left behind*.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annual meeting. New York.
- Thoits, P. A. (1995).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ocesses: Where are we? What nex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Extra Issue*, 53-79.
- Unger, J. B., Kipke, M. D., Simon, T. R., Johnson, C. J., Montgomery, S. B., & Iverson, E. (1998).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among homeless youth.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3, No. 2, 134-157.
- Weigel, D. J., Devereux, P., Leigh, G. K., Ballard-Reisch, D. (1998).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perceptions of support and stress: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3, No. 2, 158-177.
- Whitbeck, L. B., Hoyt, D. R., & Ackley, K. A. (1997). Abusive family background and later victimization among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Adolescent*, 7, 375-392.
- Yoder, K. A., Hoyt, D. R., & Whitbeck, L. B. (1998). Suicidal behavior among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7, No. 6, 753-771.

1차 원고 접수 : 2000년 9월 1일
최종 원고 접수 : 2000년 11월 20일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Strategies on the Adolescent's Depression and Runaway Impulsion

Sang Chul Han

Department of Adolescent Guidance, Kyungsan Univers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strategies on the adolescent's depression and runaway impulsion.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630 students attending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in Taegu city. The subjects were asked to respond to social support scale, coping strategies scale, depression inventory, and runaway impulsion inventory. The results indicated that first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the coping strategies all influences on significantly depression and runaway impulsion. Second,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strategies have a main effects and an interactive effects on depression. That is, adolescent's depression be influenced by both variable, but more influenced by social support than coping strategies. And a depression of the group with lower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than other groups indicate the highest score when they use negative coping strategy. Third,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strategies have a main effect and an interactive effects on runaway impulsion. That is, adolescent's runaway impulsion be influenced by both variable, but more influenced by coping strategies than social support. And a runaway impulsion of the group with negative coping strategy than other strategies indicate the highest difference between the levels of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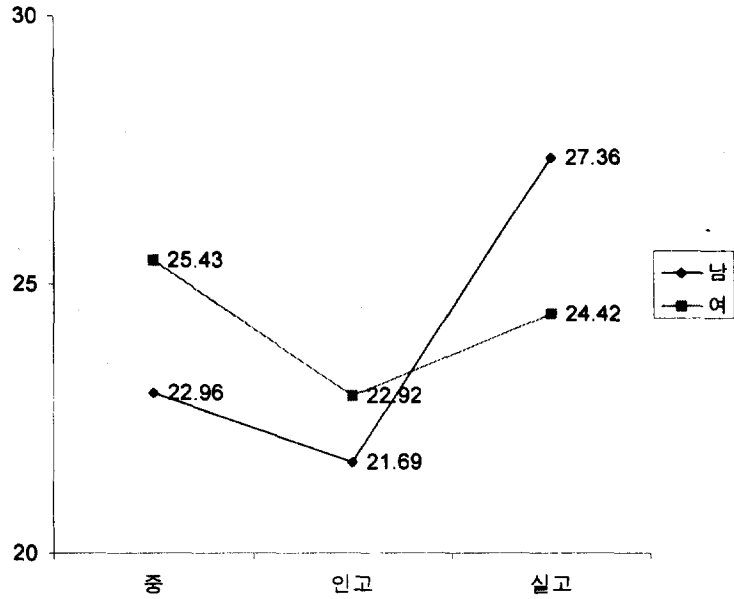


그림 1. 가출충동에 대한 성별과 학교단계간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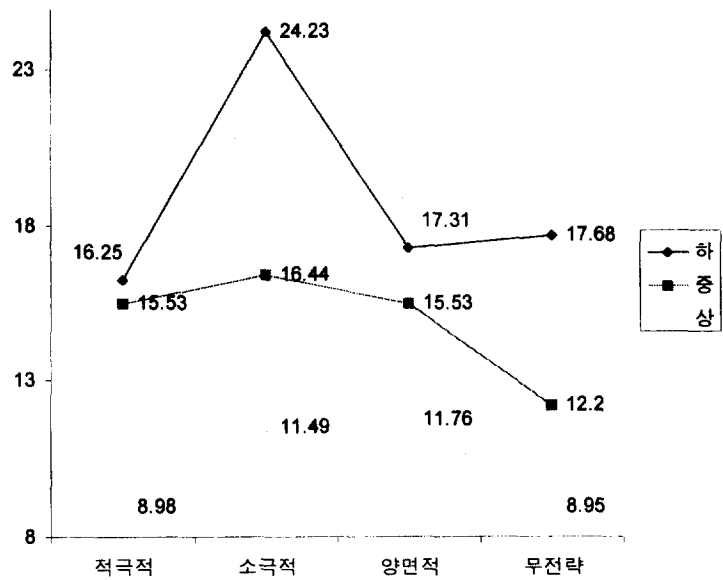


그림 2.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지각과 대처전략간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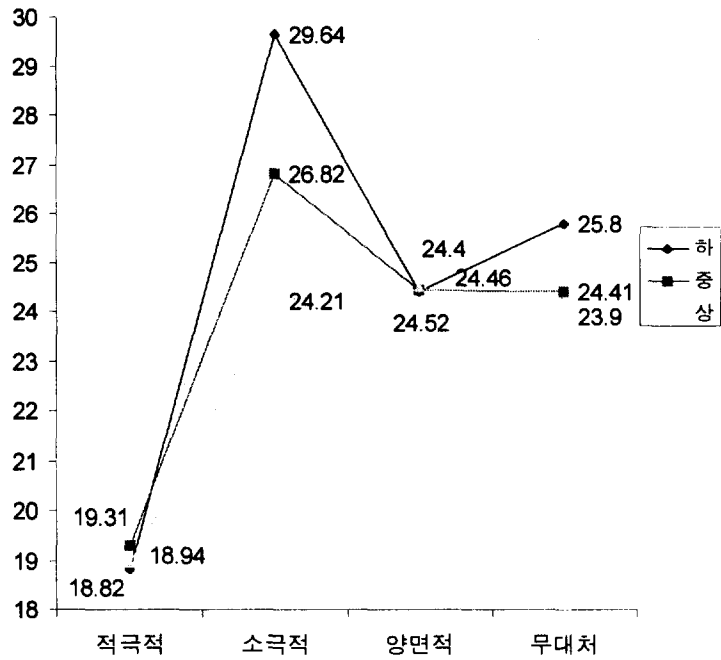


그림 3. 가출충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지각과 대처전략간 상호작용